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 아는 것도 말하지 못한다

학승이 물었다.  
“입을 빌리지 않고도 집착할 수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올바른 때야.”  
학승이 말했다.  
“원컨대 스님께서 알게 해주십시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은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해.”

問 不借口 還許商量也無 師云 正是時 云便請師  
商量 師云 老僧不曾出

상량(商量)은 ‘알아차리다’ ‘집착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이다. 여기서는 집착하다로 번역해 보았다. 원래 도는 입을 열어 설명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지는 법이다. 그리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선사들은 할과 방, 그리고 짧은 일구로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단편도 사람을 깨우치기 위하여 부득이 쓰는 것일 뿐 도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는 그런 방과 할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집착할 수 있다. 단 ‘올바른 때’ 라는 조건이 붙는다. 즉, 가장 올바른 때라면 말이나 행위나 방을 빌리지 않고도 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가장 올바른 때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주 스님은 “노승은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해”라고 했다.

천하의 남자들이여! 조주 선사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남자가 평을 하자면, “나는 잔득 기대하다가도 막상 조주 선사

가 장막을 열면 곧 실망하고 만다”라고 말하겠다.

학승이 물었다.  
“제2조가 팔을 자른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분골쇄신이야.”  
학승이 물었다.  
“누구를 위한 공양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미래인을 위한 공양이다.”

問 二祖斷臂當爲何事 師云 粉骨碎身 云供養什麼人 師云 來者供養

추운 겨울날 해가는 달마 스님을 찾아가 고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물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은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오히려 이 법은 아무에게나 전해 줄 수 없다면서 냉정히 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눈이 날리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는 불법을 얻기 전에는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스스로 맹세하고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서있었다. 새벽녘에 달마 스님이 굴 밖으로 나와 보니 눈이 무릎까지 쌓였는데 젊은 청년은 가지 않고 눈 속에서 서 있었다. 달마는 “불석신명(不措身命: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여라. 그래야 이 법을 전해줄 수 있다.” 순간 해가는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칼을 뽑아 왼팔을 잘라 버렸다. 피가 분수

같이 뿜어 나왔다. 그 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눈을 녹이고 아래 언 땅까지 녹여 땅 속에서 잠자던 파초나무 씨앗을 깨울 정도였다. 씨앗은 뜨거운 기운이 씨앗의 몸 전체를 감싸고돌자 마침내 씨앗의 눈을 뜨고 순식간에 힘차게 밖으로 솟아올랐다. 한 겨울에 파초나무가 사람의 한길 이상을 자라 올라갔던 것이다.

이것을 본 달마 스님은 해가가 진정 불법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을 알아차리고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첫 번째 부처가 탄생했다. 그러나 달마 스님이 중국에 선을 전했기 때문에 달마를 제1대, 해가를 제2대 조사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정신을 잇는 일은 이렇게 자기를 희생한 끝에 전해져 내려갔으므로 그후 스승들은 이 법을 아무에게나 전해주지 않았다. 진정 용기가 있고, 백수의 왕인 사자의 기상이 있어야 하며, 불굴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전해내려 왔다.

깨달음을 얻었던 선사들의 역경을 살펴보면, 가히 피눈물 날 정도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손가락을 베이거나, 화로를 이어 머리가 터지거나, 문에 쪼여 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온갖 고초를 겪은 뒤에 한 떨기 아름다운 꽃을 얻었다. 이러한 분골쇄신의 정신은 물론 장본인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었지만, 결국 미래 후손들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준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 선경 해제 한국선과 선어록

화엄경

### 141가지 발원을 담은 경전

《화엄경》에는 대승불교의 행법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그 가운데 선수행의 범문으로는 정행품에서는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일상에서 지켜야 할 수행규범에 대하여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질문한 과실이 없는 열 가지 신·구·의의의 터득에 대한 질문, 기타 열 가지 구족, 열 가지 지혜, 열 가지 능력, 열 가지 선교(善巧), 칠각분, 삼종삼매, 육바라밀, 사십법, 여래의 심력의 터득에 대하여 질문한다. 이에 대하여 문수보살이 제시한 것은 불제자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마음을 그대로 선용하면[善用其心] 온갖 뛰어난 오묘한 공덕을 얻어서 재물의 가르침에 걸림이 없고, 재물의 깨침에 머물며, 중생과 더불어 살게 되고, 제법의 실상에 통달하며, 악행을 벗어나 선행을 구족하고, 온갖 소원을 구족하며, 일체법에 자재하지 못함이 없고, 번뇌의 침범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고 말한다. 그것이 일상적인 수행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곧 141가지 발원이다.

여기 정행품에는 중국의 조사선에서 출현시켰던 본래성불의 사상에 바탕한 수행의 흔적이 묻어 있

루 갖추어지고 지혜와 자비가 원만해지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 한다. 이처럼 행만성불을 증득하는 이치는 증리성불의 이치와 다르지 않지만 인행(因行)이 과지(果地)까지 이르기 때문에 행만성불이라 한다. 시현성불이란 앞의 증리성불과 행만성불로 자행성불(自行成佛)을 마친 경우 중생이 몸을 바꾸어 성불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석가모니의 경우 팔상성도를 행한 것으로서 도솔천에서 나오고, 태중에 들며, 태에 머물고, 태에서 나오며, 출가하고, 성도하며, 법륜을 굴리고, 열반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팔상성도의 의미는 보신과 화신에 있지 않고 무량세계에 공집이전부터 법륜을 굴리는 능력 곧 법신에 의미가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에서는 ‘여래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열반도 없었던 본원력으로 인하여 자재한 법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순지의 삼편성불론은 화엄선의 이론적인 측면으로 제시됐다. 이 가운데 증리성불을 구체적인 실천의 측면으로 전개한 것이 세 등급의 보현행이다. 출전보현(出纏普賢)으로서 견성 후에 보살행을 하고, 입전보현(入纏普賢)으로서 일체중생과 동류대비하며, 과후보현(果後普賢)으로서 출전과 입전의 대지와 대비를 향해 역순으로 증행하면서 모든 지위에서 중생과 함께 어울리는 세 가지 등급의 보현행을 설정했다. 이 가운데 곧 출전보현의 보현행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시 세 가지 깨침의 실재를 설정했다. 곧 돈증실제·회점증실제·점증실제의 가르침이다. 돈증실제는 진리를 몰록 증득하는 경우이다. 중생이 무시이래로 성품을 깨치지 못하여 인연 따라 삼계에 윤회하다가 홀연히 선지식을 만나 성품을 깨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경각을 이루므로 돈증실제라 한다. 회점증실제는 방편수행으로서 상구보리하고 하회증생하는 실천이다. 곧 방편의 점교로 삼승의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어떤 중생이 끝없는 옛적부터 성품을 깨치지 못하고 삼계에 윤회하다가 삼승의 정교를 듣고는 삼승법과 삼계의 고뇌를 깨치는데 그 삼승인이 홀연히 진교(眞敎)를 듣고 돌이켜 미묘한 지혜를 성취하고 실재를 터득하므로 회점증실제라 말한다. 점증실제는 점교를 통하여 진리를 증득하는 것으로 수행 이후에 깨치는 것이다. 곧 어떤 중생이 무시이래로 성품을 깨치지 못하고 삼계를 윤회하면서 인연을 따라 과보를 받다가 홀연히 점교를 듣고서 신해가 점차 발생하여 육바라밀 수행에 의지하면서 삼아승지검이 지나도록 난인(難忍)을 능인(能忍)하고 난행(難行)을 능행(能行)하며 번뇌를 끊고 공덕을 성취하여 비로소 무무진지(無漏眞智)를 터득하여 법신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요오순지가 제시한 화엄선의 가르침은 달리 삼신불의 관념이기도 하다. 곧 법신은 증득되는 본래법이고, 보신은 본래법을 증득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이며, 화신은 교화행의 주체로서의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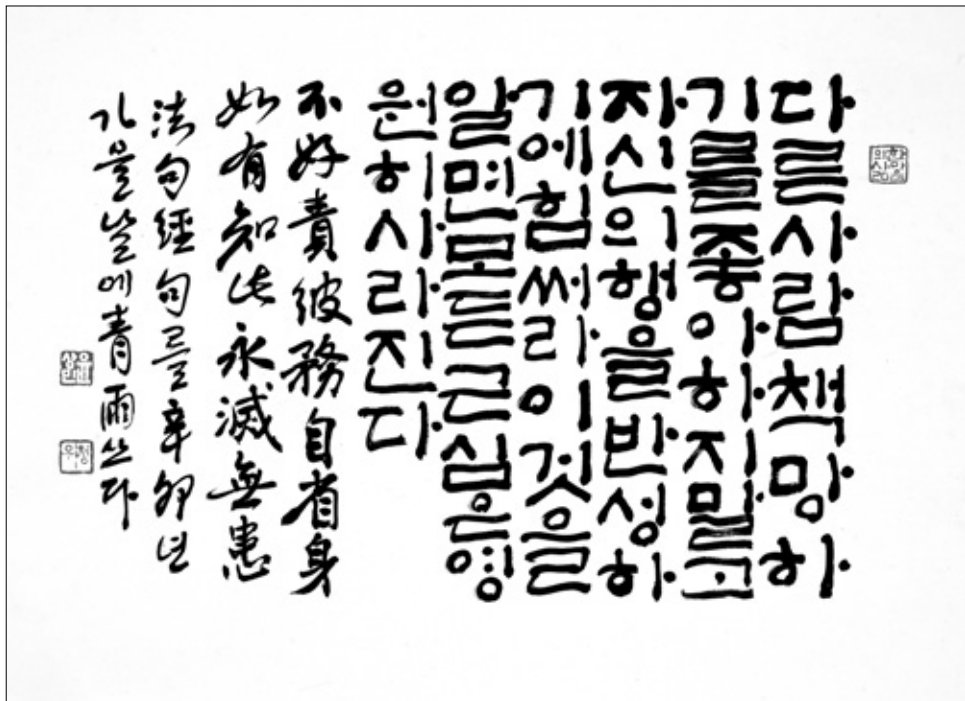
대승불교 행법, 종합해 담은 《화엄경》에는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 묻은 수행규범과 문수보살의 본래 마음을 강조한 설법 담겨 요오순지는 삼신불 통해 화엄선 펼치기도

다. 그 본래성불의 의의는 정행품의 구체적인 발원에 잘 드러나 있듯이 지혜와 자비에 근거한 교화행으로 승화했다. 나아가서 초발심공덕품에서는 또한 정신(正信)과 정심(淨心)에 바탕한 불보리의 완성으로서 초발심의 중요성과 더불어 신(信)을 깨침의 과정으로서의 수행뿐만 아니라 깨침이 완성되기까지 승화시켜주고 있다. 그 깨침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본성에 완성되어 있는 깨침이다. 그것이 곧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든가 즉심시불(即心是佛)이라든가 대기대용(大機大用)의 기지를 내걸고 화광동진(和光同塵)·이류중행(異類中行)·타니대수(拖泥帶水) 등 보살행의 실천이었다. 이와 같은 보살행에 바탕한 《화엄경》의 선수행은 신라의 요오순지에게서 잘 구현됐다.

요오순지는 삼편성불론(三遍成佛論)을 통해 증리성불(證理成佛)·행만성불(行滿成佛)·시현성불(示顯成佛)의 세 가지 성불의 원리를 제시했다. 증리성불이란 선지식의 말을 듣고 회심하여 자기의 마음 바탕에는 본래 일불도 없음을 활짝 깨치는 성불이다. 만행(萬行)을 차례로 뒤이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리성불이라 한다. 그러므로 경에서 ‘초발심시변성정각’이라 하였다. 이것은 불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면 된다는 바로 그것이었다. 행만성불이란 이미 진리의 근원을 끝까지 구명했으니 다시 보현의 행원을 따라 보살도를 두루 뒤야 수행이 골고

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회점증실제는 방편수행으로서 상구보리하고 하회증생하는 실천이다. 곧 방편의 점교로 삼승의 진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어떤 중생이 끝없는 옛적부터 성품을 깨치지 못하고 삼계에 윤회하다가 삼승의 정교를 듣고는 삼승법과 삼계의 고뇌를 깨치는데 그 삼승인이 홀연히 진교(眞敎)를 듣고 돌이켜 미묘한 지혜를 성취하고 실재를 터득하므로 회점증실제라 말한다. 점증실제는 점교를 통하여 진리를 증득하는 것으로 수행 이후에 깨치는 것이다. 곧 어떤 중생이 무시이래로 성품을 깨치지 못하고 삼계를 윤회하면서 인연을 따라 과보를 받다가 홀연히 점교를 듣고서 신해가 점차 발생하여 육바라밀 수행에 의지하면서 삼아승지검이 지나도록 난인(難忍)을 능인(能忍)하고 난행(難行)을 능행(能行)하며 번뇌를 끊고 공덕을 성취하여 비로소 무무진지(無漏眞智)를 터득하여 법신이 드러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요오순지가 제시한 화엄선의 가르침은 달리 삼신불의 관념이기도 하다. 곧 법신은 증득되는 본래법이고, 보신은 본래법을 증득하는 주체로서의 사람이며, 화신은 교화행의 주체로서의 사람이다.

## 운상민의 서화산책 법구경 쌍요품



### 나를 알면 근심은 사라진다

不好責彼 務自省身 如有知此 永滅無患 (불호책피 무자성신 여유지차 영멸무환)  
다른 사람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에 힘써라. 이렇게 자신을 알면 모든 근심은 영원히 사라진다.

責: 꾸짖을 책, 빗 채  
務: 힘쓸 무, 업신여길 모  
省: 살필 성, 덜 생  
此: 이 차  
滅: 꺼질 멸, 멸할 멸

법구경 부처님 말씀  
영멸무환  
영멸무환  
영멸무환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김회규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 2600주년 부처님 깨달으신 날 밤샘참선(철야정진) 안내

겨울에도 마음 닦는 공부에 열중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신묘년 동안거 지장정진(기도)를 회향하는 날(1월1일)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2600주년 성도절(음.12.8)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인 12월31일 오후 7시부터 밤샘 참선을 하여 성도절 새벽 5시 예불과 함께 회향공을 모시고 아침공양 후 회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새해 첫날이기도 하므로 모두 동참하여 행복한 2012년을 열린선원에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도절은 특히 2600주년 부처님 깨달음 얻으신 날이므로 가족과 함께 동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1. 지장정진입재 (시작) : 2011년 11월 13일(일) 오전 10시 30분 (진행중임)
2. 성도재일 밤샘참선 : 12월 31일(토) 오후 7시 ~
3. 지장정진회향 (마무리) : 2012년 1월 1일(일) 오전 5시  
(밤샘 참선에 못 오시는 분들도 새벽 5시 예불 및 정진회향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참자 모두에게 차량에도 걸 수 있는 108산호단주 드림)
4. 지장정진 기간 중 가정에서도 매일 천수경 독송 후 지장정근 108회 하시고 마음속으로 가족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 및 접수 : 02)386-4755, opentemple@hanmail.net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7-1, 역촌중앙시장 2층(6호선 구산역 4번 출구 근처)

저자거리 열린선원 원장 무상법현 합장